

잡아함 53. 바라문경(婆羅門經)

날짜: 1월 14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4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拘薩羅國)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살라(薩羅)마을 북쪽에 있는 신서림(申恕林)에 계셨다.

그때 그 마을의 주인이고 위대한 성을 가진 바라문은 ‘사문 석가족의 자손[釋種子]은 석가(釋迦)라는 위대한 성(姓)으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바른 믿음으로 집 아닌 데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 무상등정각(無上等正覺)을 이룬 분이다. 그 분이 이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다가 살라마을 북쪽에 있는 신서림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또 ‘그 사문 구담은 훌륭한 모습과 명성과 진실한 공덕이 있어 하늘과 사람들의 찬탄이 8방(方)에 자자하며, 여래(如來) · 응공[應] · 명행족(明行足)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師) · 조어장부(調御丈夫) · 천인사(天人師) · 불세존(佛世尊)이 되어, 모든 세간과 모든 하늘 · 악마 · 범 · 사문 · 바라문들 가운데서 큰 지혜로 스스로 증득해 아나니, 즉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신다. 그 분이 세상을 위해 연설하시는 법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훌륭하고, 훌륭한 이치와 훌륭한 맛은 순일하고 원만하며 깨

끗하다. 그 분은 범행이 깨끗하고 묘한 법을 연설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훌륭하구나. 나는 뵈리라. 훌륭하구나. 나는 찾아가리라. 나는 찾아가 공경하고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훌륭한 수레를 타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금 병과 금지팡이와 일산을 지니고, 공경하고 밭들어 섬기기 위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숲 어귀에 이르자 수레에서 내렸고, 걸어서 세존께 나아가 문안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사문 구담께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인(因)을 주장하고, 인(因)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인을 주장하고 어떻게 인을 설명하십니까 ?”

“인(因)이 있고 연(緣)이 있어서 세간을 발생시키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발생합니다. 또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을 소멸시키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소멸합니다.”

“세존이시여,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을 발생시키며,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못한 범부들은 색의 발생 · 색의 소멸 · 색에 맛들임 · 색의 재앙 · 색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사랑해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그는 색을 사랑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되고, 취함[取]을 인연하여 존재[有]가,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

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을 발생시키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을 소멸시키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발생 · 색의 소멸 · 색에 맛들임 · 색의 재앙 · 색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압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 색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도 않으며, 물들어 집착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색에 대한 애욕은 곧 소멸하게 되고, 애욕이 소멸하면 취함이 소멸하며, 취함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을 소멸시키며,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세간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이른바 인을 주장하고 인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께서는 이와 같이 인을 주장하시고, 이와 같이 인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일이 많아 이제 하직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좋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바라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